2017년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성주군의회

목 차

Ⅰ. 연수개요 3

1 연수목적 3

2 연수국가 3

3 연수기간 3

4 연수인원 3

Ⅱ. 연수일정 4

Ⅲ. 연수국 현황 6

Ⅳ. 주요 방문지 9

Ⅴ. 연수후기 24

Ⅰ 연 수 개 요

1. 연수 목적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해외의 다양한 우수시책들에 대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뉴질랜드 지역의 관광정책, 청정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정책, 농상물 생산유통 사례 등 우수한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수립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

2. 연수국가 : 뉴질랜드

3. 연수기간 : 2017. 8. 28(월) ~ 9. 3(일) 【6박 7일】

4. 연수인원 : 9명(의원 7, 수행직원 2)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계	9명		
성주군의회	의 장	배 재 만	
	부 의 장	김 명 석	
	의 원	배 명 호	
	의 원	백 철 현	
	의 원	곽 길 영	
	의 원	노 광 희	
	의 원	배 복 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배 한 수	수행직원
	주 무 관	이 수 은	수행직원

Ⅱ 연 수 일 정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제1일차 8월28일 (월)	인 천	KE129	16:5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오클랜드 향발 (비행시간 약11시간20분 소요)
				숙 소 : 기내1박
제2일차 8월29일 (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마운트쿡	항 공 차 량	08:10	입국 수속 후 가이드 미팅 오클랜드 공항 출발 /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향발[국내선 항공] [크라이스트처치]로 이동 ▶ 관광정책, 청정환경유지 정책 등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 크라이스트처치 시내탐방 [마운트쿡 국립공원]으로 이동 ▶ 문화콘텐츠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HOTEL : MACKENZIE HOTEL
제3일차 8월30일 (수)	마운트쿡 퀸즈타운	차 량		호텔 조식 [푸카키 호수]로 이동 ▶ 관광자원 활용화 사례 및 운영 실태 탐방 - 아오라키 마운트쿡 탐방 ▶ 농산물 생산유통단지 견학 및 우수사례 자료 수집 - 과일농가 방문,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실태 조사 [퀸즈타운]으로 이동
				HOTEL : CORONET HOTEL
제4일차 8월31일 (목)	퀸즈타운	차 량		호텔 조식 [피요르드 국립공원]으로 이동 ▶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 탐방 - 피요르드 국립공원 탐방 - 밀포드 사운드 탐방 [퀸즈타운]으로 이동
				HOTEL : CORONET HOTEL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제5일차 9월1일 (금)	퀸즈타운 오클랜드 로토루아	항 공 차 량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퀸즈타운 출발 / 오클랜드 향발[국내선 항공] [로토루아]로 이동 ▶ **관광산업 발달에 기여한 원주민의 전통문화 탐방** - 원주민 마오리족 전통문화 견학 및 관광자원 활용 사례 벤치마킹
				HOTEL : SUDIMA HOTEL
제6일차 9월2일 (토)	로토루아 오클랜드	차 량		호텔 조식 ▶ **청정지역인 뉴질랜드의 축산 농장 팜투어** - 아그로돔 농장 팜투어 - 농장소개 등 농장주의 브리핑 - 농장 투어 및 체험 ▶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 방문** - 의회행정, 의원의 역할, 회기운영(의사일정) 등 조사 - 의정활동(위원회활동) 방향 등 청취 - 우수사례 자료 수집 등 [오클랜드]로 이동
				HOTEL : ROSE PARK HOTEL
제7일차 9월3일 (일)	오클랜드 인 천	차 량 KE130	08:45 17:45	기상 후 오클랜드 공항으로 이동 오클랜드 국제공항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현황

1. 뉴질랜드 소개

○ 뉴질랜드는 마오리어(語)로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라고 불린다.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동쪽 약2,000㎞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27만 ㎢이다. 북섬(11만 4000㎢)과 남섬(15만 1000㎢) 2개 섬으로 이루어진 본토와 여러 섬 및 제도(諸島)를 국토로 한다.

○ 남쪽으로 스튜어트섬·캠벨섬·오클랜드 제도, 동쪽의 채텀 제도 등 부속도서와 북쪽으로 케르매덱·쿡 제도, 니우에섬, 라울섬, 토켈라우 제도, 남극 대륙에 있는 로스 속령 등도 포함된다.

○ 오스트레일리아·미크로네시아·피지·통가 등 15개 국가와 함께 태평양제도포럼(PIF : PacificIslandsForum)을 형성한다. 행정구역은 16개 주(region)와 준주(territory)인 채텀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뉴질랜드에 처음 살게 된 사람들은 마오리족이다. 마오리족 조상들은 10세기를 전후하여 고향 폴리네시아 하와이키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이 나라에는 마오리족만의 토착문화와 영국계 백인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남섬 서해안에 도착한 네덜란드의 아벌 타스만(AbelTasman)이었다. 네덜란드 당국은 그의 고향 제일란트 주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새 제일란트'(노바젤란디아/니우제일란트)라 이름 붙였다.

○ 이 후 100여년간 유럽은 이곳을 찾지 않다가,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자세히 탐험하게 된다. 뉴질랜드 내에서는 원주민들의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를 진압한 영국은 1840년에 마오리족과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여 뉴질랜드를 식민지로 삼았다.

○ 67년 후인 1907년 뉴질랜드는 자치령이 되고, 1947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과 더불어, 영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영연방 입헌 군주제하의 자치지역'으로 거듭났다.

○ 1907년에 독립하였으나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형식적으로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 형태다.

2. 일반사항

○ 국 가 명 : 뉴질랜드(NewZealand)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 인　　구 : 약 474만명 (2016년, 뉴통계청 추정치), 북섬에 약 75% 거주
○ 면　　적 : 270,692㎢(남한의 2.7배)
○ 행정구역 : 16개 주(region)와 준주(territory)인 채텀제도
○ 인　　종 : 유럽계 백인(75%), 마오리족(16%), 태평양제도인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 종　　교 : 개신교(35%), 카톨릭(13%)
○ 문　　화 : 유럽풍이 강하면서도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되살린 복합적 요소를 갖는다

3. 정치현황

○ 정부/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 국가 원수는 영국여왕인 엘리자베스(QueenElizabeth) 2세이며, 여왕은 뉴질랜드 총리가 제청하여 임명하는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

○ 의회구성 : 총 121석(2017년 9월 총선예정)
- 단원제(임기 3년)
- 국민당 59석, 노동당 31석, 녹색당 14석, 뉴질랜드 제1당 12석, 기타 4석(2017년 2월 기준, 공석 1석)

○ 총독(Governor-General)
- 임기 : 5년
- 권한 :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상시에는 상징적인 정치 권력만 보유
- 현재 총독 : Dame Patsy Reddy(여) ※ 총리 : Bill English(남)

4. 경제현황

○ 총 GDP : US$ 1,738억
○ 경제성장률 : 3.39%
○ 1인당 GDP : US$ 37,808
○ 실 업 률 : 5.75%(IMF)
○ 산 업 구 조 : 1차 산업(7.01%), 제조업(12.96%), 전기가스수도(2.21%), 건설(4.2%), 도소매 숙박(12.21%), 운송 통신(11.43%), 금융 보험(4.84%), 공공행정안전(4.28%), 부동산임대(12.54%)
○ 총 교 역 : US$710억(WTO)
- 수 출 : US$ 344억 - 수 입 : US$ 366억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2.3.26.
○ 특수관계 :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 한-뉴 FTA 발효 : 2015. 12. 20.
○ 교역(2016) : US$ 24.03억(한국무역협회)
- 수 출 : US$ 13.05억(자동차, 섬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 수 입 : US$ 10.98억(목재, 육류, 낙농품, 기타석유화학 등)
○ 교 민 : 30,174명(2016년 기준) ※ 유학생수 : 6,327명(2015)
-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 아시아계 이민자 중 중국(17만명), 인도(14만명), 필리핀(4만명)에 이어 4번째
※ 주한 뉴질랜드인 : 4184명('17.1월)

Ⅳ 주요 방문지

1 크라이스트처치

◆ 목　　적 : 문화, 관광정책 등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자 : 2017. 8. 29.(화)

❑ 크라이스트처치 소개

○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는 뉴질랜드의 남섬 동쪽에 있는 캔터버리 지방의 주요 도시로, 남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대도시권이기도 하다.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과 헤글리 공원 등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서 "정원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다. 에이번 강과 히스코트 강의 합류점에 있으며 목축·밀·경작 지대의 중심이다.

○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지진으로 2011년 2월 22일 오후 12시51분께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에서 발생했다. 규모 6.3의 지진은 진원이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5km 깊이 밖에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했다. 진앙 근처에 리틀턴이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진 범위가 넓어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도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수는 대략 200여명에 이른다.　2011년 지진 이후 고층건물은 사라졌으며 도시 전체가 낮은 건물들로 되어 있다.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약 1만5000건의 지진이 발생하며, 이중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만 약 150건이 매년 발생한다.

❑ 에이번 강, 헤글리 공원

○ **에이번 강(Avon River)**은 시내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헤글리 공원을 가로 지르며, 시내 전체를 흐르는 강이다. 작은 강으로 여행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을 한다. 그러나 이내 맑은 강물과 깨끗한 주위를 둘러보고 실망이 감탄으로 바뀐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전혀 되지 않아서 야생의 청둥오리들이 내려와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무가 늘어서고 풀로 뒤덮힌 둑이 특징인 에이번 강은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바닥의 수초가 보일 정도로 물이 맑다.

○ **헤글리 공원**은 시내의 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 여의도 정도. 여러 개의 아름다운 호수들과 골프를 비롯한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각종 오래된 고목 나무들이 즐비해 있으며. 시내를 끼고 유유히 타고 흐르는 맑은 강줄기 안에는 연어들과 오리들이 가득 생식하고 있다.

2		마운트쿡 국립공원

◆ 목　　적 : 관광자원 활용화
우수사례 탐방

◆ 방문일자 : 2017. 8. 30.(수)

❑ 마운트쿡 국립공원

○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쿡 산(3,754 m)과 가장 긴 빙하인 타스만 빙하(29 km)를 포함하고 있다. 등반과 스키, 비행의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 아오라키/마운트쿡 국립공원(Mount Cook National Park)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산들을 비롯해 수많은 빙하와 만년설이 함께 어우러진 남반구의 알프스다. 마운트쿡은 뉴질랜드 남섬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던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높이는 3754m에 달한다. 아오라키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부르는 이름으로 '구름을 뚫는 산'이라는 뜻이다.

○ 남반구의 고위도 지방이라 고도 2000m 이상은 여름에도 만년설에 덮여 있는 험준한 고산으로 계곡 곳곳에 거대한 빙하가 발달하여 있다. 이곳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등정 훈련을 한 곳이라고 한다. 알프스나 히말라야 같은 빙하와 암릉이 있는 고산으로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 푸카키 호수(Lake Pukaki)

○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트 쿡과 마운트 쿡 근처에 위치한 호수.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빙하호(氷河湖)로, 면적은 80㎢이다. 맥켄지 베이슨(Mackenzie Basin)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남으로 흐르는 3개의 고산 호수 중 두 번째로 큰 호수이다. 호수는 빙하가 유입되어 특유의 파란색을 띠는데, 빙하로부터 나온 극도로 미세한 바위 입자 때문이다. 망류(網流)를 이루는 태즈먼강(Tasman River)이 호수의 북쪽 끝에서 유입되는데, 발원지는 마운트 쿡(Mount Cook, 마오리어로는 아오라키 Aoraki) 근처의 태즈먼 빙하와 후커 빙하이다. 호수는 남쪽 끝에서 푸카키 강(Pukaki River)으로 흘러나간다.

❑ 테카포 호수(Lake Tekapo)

○ 테카포 호수 역시 서던 알프스 산맥의 여러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호수는 에메랄드 색상을 띠고 있는 맑은 물빛이 아름답다. 호수의 길이는 20km나 되고 해발 704m~710m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호수의 바닥에는 2만여년간 빙하에 의해 침전된 퇴석이 깔려있다고 한다.

○ 테카포 호수가에는 '양몰이 개의 동상'과 '선한목자 교회'가 있다. "선한목자 교회(Church of the Good Shepherd)"는 이 지역 초기 개척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35년에 호수 주위에 있던 돌과 모래로 지었다는 조그만 교회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양몰이 개(A boundary sheepdog)의 동상"은 선한목자 교회 옆에 청동으로 만든 개의 동상을 말한다. 이 동상은 처음 이주자들이 이 넓은 산에 목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개들이 양을 열심히 몰아준 덕분이었다고 생각하여, 양몰이 개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3 크롬웰 과수재배단지 방문

◆ 목　　적 : 뉴질랜드의 친환경 과수재배의 모습, 보조금 없이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요인 탐색 등

◆ 방문일자 : 2017. 8. 30.(수)

❑ 크롬웰 과수재배 단지

○ 남섬의 크롬웰이라는 이 지역은 땅이 무척이나 비옥하고 강우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농사나 사과농사, 키위농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크롬웰은 클루타강과 카와라우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수재배단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크롬웰 과수단지에서는 뉴질랜드 최대의 과일산지인 과일재배에 적합한 기후로 유독 높은 당도를 자라하기에 달고 맛좋은 다양하고 신선한 과일을 현장에서 시식한 후 선택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과수단지이기도 하다.

○ 크롬웰 과수재배 단지 개요

-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하며, 유명한 관광지인 퀸스타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 규　　모 : 30ha, 상시인원 :12명, 농번기 시: 150명
- 주력품종 : 체리, 살구, 살구 등
- 기　　후 : 기후가 과수 재배에 적합하여 병충해 발생이 적음
- 주력품종 : 체리 및 살구
- 수 요 처 : 생산품의 80~90%는 해외수출, 나머지는 국내판매

○ 방문내용

- 국가의 농장에 대한 보조금은 없음
- 농장일의 상당 부분은 기계와 자동화를 사용하여 경영이 됨 (트랙터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농장운영)

- 적과와 수확시 많은 인력 수요는 임시 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해결함
  - 경쟁력 유지 요인 : 천혜의 자연환경(해충 및 병에 의한 피해 적음)
  - 1가구당 넓은 경작 공간(30ha)
- 값비싼 농기구의 리스제도 발달
- 풍부한 수원(호수, 지하수)
- WOOF(농장일 도와주고 숙식 제공받음) 등을 통한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수확기에 이용
-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과수단지 전체를 일정 분획하여 순차적으로 숙성 및 수확하여 가격안정 및 인력 사용의 효율화를 꾀함
- 안정적인 유통망(생산물의 90% 해외 수출 가능)

4 피요르드 국립공원

◆ 목　　적 :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 탐방

◆ 방문일자 : 2017. 8. 31.(목)

❑ 피요르드 국립공원

○ 피오르드 랜드 국립공원(Fiordland National Park)은 피오르드 랜드로 알려져 있는 지역으로,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12,500 ㎢)이며, 테와히포우나무 세계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6년주변의 국립공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으로 등록되었다.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남반구의 피오르드, 밀포드 사운드로 유명하다. 또한 등산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 밀포드사운드

○ **밀포드 사운드**(Milford Sound)는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에 위치한 피오르드이다. 테와히포우나무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어있다. 별칭으로 '피오피오타히'(Piopiotahi, 마오리어 로 "한 마리의 피오피오 새라고 부른다. 밀퍼드 사운드는 웨일스에 있는 밀퍼드 헤이븐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며 피오르의 입구인 데일 포인트의 태즈먼 해에서 내륙으로 15 km 달리며, 양쪽으로 1200m를 솟아 있는 기괴한 바위 면에 둘러 쌓여 있다. 가장 높은 봉으로는 주교가 쓰고 있는 마이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1,692m의 마이터 피크가 있다. 그 봉우리 중 엘리펀트 봉은 1,517m이다. 이러한 벼랑에 붙어 있는 러쉬 열대우림과 바다에서는 물개와 펭귄 그리고 돌고래가 종종 보인다. 밀퍼드 사운드에는 레이디 보웬 폭포(Lady Bowen Falls)와 스털링 폭포(Stirling Falls) 두 개의 폭포가 연중 흘러내린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 후에는 수 백개의 폭포가 일시적으로 형성되어 가파른 바위 벼랑을 타고 흘러내린다.

❑ 호머 터널(homer tunnel)

○ 뉴질랜드 남섬 피요르드 랜드 국립공원의 호머 터널은 밀퍼드 사운드와 테아나우, 퀸즈타운을 연결하며 밀포드 사운드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유일한 육로이다.

○ 1935년 공사 시작하여 1953년 완공 그리고 1954년 개통한 높이 3.81m 길이 1270m 터널이다. 단단한 암반을 다이나마이트와 망치, 정을 이용한 깨어내어 완공하였다.

○ 터널의 완성 기간만도 20년이 걸렸다는 호머 터널은 자연 경관을 헤치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는 이곳 호머 터널은 1차로 뿐이다. 양쪽 끝에 있는 신호기를 보고 한쪽 방향이 진행하면 반대편 방향 차량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였다면 통행의 불편함 때문에 왕복 2차선 확장 공사를 바로 추진했을 것이다.

5		로토루아

◆ 목　　적 : 관광산업 발달에 기여한 원주민의 전통문화 탐방

◆ 방문일자 : 2017. 9. 1.(금)

❑ 로토루아 (Rotorua)

○ 로토루아(Rotorua)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도시이다. 로토루아는 오클랜드의 남동쪽 230 km 상에 위치하며, 북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화산과 지열 발전이 발달되었고, 마오리족 문화의 중심지로 뉴질랜드 최대의 관광업 중심지이다.

○ 이 도시는 지열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간헐천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와카레와루와의 포후투 간헐천이 유명하며, 뜨거운 진흙탕으로 되어 있다. 로토루아는 많은 대학의 대규모 연구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와이아리키기술연구소가 있다.

○ **폴리네시안 온천욕 :** 1878년에 카톨릭 신부가 발견한 온천으로 류머티즘과 근육통등의 관절염에 효염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1882년에 요양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 후 영국왕 조지 5세가 될 요크 공이 방문하여 격식을 갖춘 건물로 바뀌었으나, 1931년에 수상의 이름을 따서 건물 명칭이 'The Ward Bath'가 되었다. 1972년에 다시 개축하여 현재의 이름인 '폴리네시아 풀'이라 부르게 되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온천 건물로 남아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가운데 하나이며 1882년에 지어진 온천욕 건물은 로토루아에서 역사가 가장 긴 건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 마오리족

○ 뉴질랜드 원주민을 마오리(Maori)라고 부른다. 이들은 폴리네시아계의 해양종족으로 유럽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뉴질랜드에

도착해 있었다. 당시 인구는 20~5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19세기 말) 약 4만 명으로 격감하였다. 마오리족은 1150년경부터 태평양의 어딘가(타히티?)에서부터 이주하기 시작해, 14세기에 대선단이 도착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 뉴질랜드는 지구 상의 땅 중에서는 가장 늦게 인류가 도착한 곳이다. 마오리족과 영국인들 간에 벌어진 마오리 전쟁은 1840년 영국이 뉴질랜드를 공식적으로 지배하게 된 뒤 벌어진 토지 쟁탈전이다. 1863년 7월부터 시작된 와이카토 전쟁은 1864년 4월 초 오라카파가 점령되면서 사실상 끝이 났다. 마지막 마오리 전쟁은 1864~1872년에 일어났는데 양쪽 모두 지친 가운데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다. 30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북섬 중서부에 있는 마오리 왕 지배 지역은 여전히 영국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마오리 소유의 땅이 많이 남아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오리들은 도시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그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백인과의 결혼이 점차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마오리족 남자와 백인 여자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마오리족에게는 유럽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마오리들에게 마오리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점점 그들의 언어 문화가 외래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마오리족의 문화 행사나 공식 행사에서는 마오리어를 사용한다.

○ '포카레 카레아나'라는 마오리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가'라는 제목으로 유행했던 노래이다. 이 노래는 마오리족인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의 전설이 담긴 노래이다. 육지에 사는 아리와 부족의 족장 딸 히네모아가 타우포 호수 내의 모코이아 섬에 사는 훠스터의 아들 투타네카이의 피리 소리에 반하여 짝사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 이 노래는 6·25 전쟁 때 참전한 뉴질랜드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 졌고 '연가'라는 곡으로 편곡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었다. 우리에겐 즐겁고 빠른 템포의 노래라고 알려졌지만, 원래는 마오리족 남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굉장히 느리고 아름답게 불러야 한다.

6	아그로돔 농장 팜투어

◆ 목　　적 : 청정지역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목장 팜투어를 통한 관광활용화 벤치마킹

◆ 방문일자 : 2017. 9. 2.(토)

❑ 아그로돔 농장 팜투어

○ 아그로돔 농장은 광활한 초원 위에 위치한 곳으로 실내 공연장에서는 매일 3회에 걸쳐 양쇼가 펼쳐지는데, 양몰이 쇼, 양털깎기 쇼, 소젖짜기 시범 등의 볼거리가 있으며, 팜투어와 팜스테이도 가능.

○ 실내에서 양털깎기 쇼가 끝나면 모두 밖으로 나와 양몰이 개가 양을 모는 모습과 목동들이 넓은 벌판에서 양을 다루는 모습 등을 구경하게 된다.

○ 트랙터 셔틀버스를 타고 농장투어를 하는데 양 뿐만 아니라 사슴, 알파카, 여러 종류의 소, 돼지,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보면서 먹이를 주는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 사람도 동물도 모두 여유가 넘치는 뉴질랜드 아그로돔 농장, 거대한 목양농장으로 초록 들판에 노니는 수많은 양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되는 팜트랙 투어이다. 이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를 함께 참여하여 즐기면서 이를 부가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돋보인다.

7 로토루아 시의회

◆ 목　　적 :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 방문으로 지방자치제도 견학

◆ 방문일자 : 2017. 9. 2.(토)

❑ 뉴질랜드 의회

○ 뉴질랜드 의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는 1854년에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을 폐지하였다. 1854년 의원 수는 37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 121명으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는 1893년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나라다.

○ **뉴질랜드 의회는 단원제**이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총 의석수는 121석으로 지역구가 69석이고 전국구가 51석이다.

○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의 시민과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부여한다. 피선거권은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영주권자는 출마할 수 없다.

○ 뉴질랜드 의회는 총독이 소집하고 해산한다. 일반적으로 2월에 개회하고 11월에 휴회한다.

○ 의회 기능 : 법률제정, 정부구성, 정부통제 등의 기능을 한다.

○ 의회 조직 :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Leader of the House),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 **의회 운영 방식** : 뉴질랜드 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여당 의석이 왼편에는 야당 의석이 있다. 회의는 보통 화요일~목요일 사이에 개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진행할 수 있다. 회의는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장의 기도로 개시되며 14시~18시에 정례 안건을 취급한다. 의회에 대한 청원, 각 부처의 보고서와 법률안 설명서 제출,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관련 장관의 구두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화요일과 수요일 19시 30분~22시에는 저녁 회의가 진행된다. 주로 입법 사항과 차기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외교 문제를 비롯한 특수 문제와 각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제반 문제도 함께 토의한다.
- 회의에서 각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엄격히 통제된다.

○ 의회의 법률 제정절차 : 정부나 국회의원 명의로 법률안을 발의한다.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제1독회와 제2독회가 끝난 후, 예산 사항과 긴급 사항이 아니면 상임위원회 심의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Committee of the Whole House)에 회부된 법률안을 회부하고 각 조항을 심의한다. 법률안 심의가 끝나면 의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회는 의회에 보고한다.
제3독회에 회부한 뒤, 법률안이 통과되면 총독의 동의절차에 회부된다. 총독의 동의에 따라 법률안은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생한다.

○ 정당별 의석 구성 : 총 121석(2017년 9월 총선예정)
- 국민당 59석, 노동당 31석, 녹색당 14석, 뉴질랜드 제1당 12석, 기타 4석(2017년 2월 기준, 공석 1석)

❑ 뉴질랜드 지방자치제도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주의회(Regional Council) 11개와 지방자치 지역(Territorial Authority) 67개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 지역은 시의회(City Council) 12개, 군의회(District Council) 54개, 오클랜드 의회(Auckland Council)로 구성된다. 주의회와 지방자치 지역의 관계는 상하 종속적이지 않다. 오클랜드는 원래 주의회 1개와 시의회 8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통합 작업이 완료되어 1개의 지방자치 지역인 오클랜드 의회로 개편되었다.

○ 뉴질랜드의 도(Regional Council)는 총 11개로, 북섬에 7개, 남섬에 4개가 있다. 뉴질랜드의 시·군(Territorial Authority)은 최소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2개의 시의회와 54개의 군의회로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3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 로토루아

○ 로토루아 인구는 7만 8천명 정도

○ 시청직원은 520명 정도이며 가버먼트가든에서 공원관리를 주로함

○ 시의 주요업무는 상수도 폐수, 도로, 폐기물 처리 등이며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관리는 지방시에서 하지만 고속도로 등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복지나 노인, 경찰, 119 등의 업무는 시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업무임

○ 시의 주요 산업은 농업, 임업, 관광업이며 지열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음. 로토루아 병원은 시가 아닌 병원 운영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로토루아 도서관은 오래되어 공공용도로 활용 예정이며 도서관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이 병원 등을 이용할 시 활용되고 있음

○ 시의원은 12명이며 6주에 한번 의회가 열린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에 맞게 보수를 지급한다. 의원마다 각자의 분야가 있으며 결정은 시장이 한다. 시장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V 연 수 후 기

이번 뉴질랜드 연수는 크라이스트처치, 마운트쿡 국립공원, 피요르드 국립공원, 로토루아 시의회 등 뉴질랜드 주요기관과 관광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우수한 제도와 정책들을 견학·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와 시책 발굴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배재만 의장〉

뉴질랜드는 자원이 풍부해 농경지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이다. 특히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크롬웰 지역은 땅이 비옥하여 과수재배단지로 유명하다.

국가의 농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기계와 자동화를 사용하여 경작하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광활한 황무지를 스프링클러 기술을 도입하여 목초지로 전환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국가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을 때 뉴질랜드 농업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러 농장주들이 모여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제스프리" 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골드키위"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스프리는 세계적인 키위 브랜드로서 좋은 모범 기준이 되고자 노력하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큰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명석 부의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뉴질랜드는 환경만큼이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 뉴질랜드는 1938년에 다른 선진국에 훨씬 앞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수당 및 연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제도를 수립한 최초의 사회복지국가이다.

모든 사회국성원의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이 뉴질랜드에서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되었다.

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이혼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하고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라 하겠다.

수십년 동안 발전시켜 온 훌륭한 제도들을 우리 지역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국민 정서와 재정여건에 맞는 복지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명호 의원〉

유기농, 친환경으로 세계 마지막 청정 국가라 인정받는 나라인 뉴질랜드는 국토의 50% 이상이 목초지이며, 자연환경은 온화한 기후로 농축산업에 매우 이상적이다. 뉴질랜드는 고도로 발달한 농축산국가로서 특히 양모, 낙농품, 유류의 생산과 수출이 국민경제의 골격을 이룬다. 육류는 신뢰도와 신용 유지를 위해 정부의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 수출된다. 뉴질랜드 낙농업자, 육류업자들의 신뢰지수는 세계 제일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한 신뢰지수가 어떠한가? 우리에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끝없는 광활한 목초지를 보면서 이러한 환경을 가진 나라와 우리나라 축산업을 비교한다는 것이 이치에는 맞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도 더욱 청결한 생산과 안전한 유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먹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로 고통받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겠다고 새삼 느끼게 한 연수였다.

〈백철현 의원〉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해외의 다양한 우수시책들에 대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실시한 이번 연수는 뉴질랜드였다. 남태평양의 서남단,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은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잘 정리된 사회제도, 민주주의의 전통 등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남반구의 낙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업이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앴으며 축산업에 있어서는 국가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축산업을 하는 농장주들이 생산을 하면 국가는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책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조금만으로는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방면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토피아 또는 복지 천국이라 불리우는 뉴질랜드는 1930년대에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이다. 병든 사람과 실업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오늘날 뉴질랜드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공평하게 월 16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산다. 정치는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있기에 좋은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영원히 잘 보존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적 법적용을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청렴성이 세계 최고수준인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이다. 차량 앞 유리창에 'NO FOOD, NO DRINK' 스티커가 붙여 있어 차내에서는 '물'이외의 음식과 음료수를 먹지 못한다. 우리나라 관광버스 안은 어떠한가?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술 마시며 춤추는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깨끗한 자연환경, 최고의 복지제도는 정부에서 훌륭한 정책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국민의식수준이 따라주지 못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곽길영 의원〉

지구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나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여성이 힘이 있는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청정지역 목축업이 가능한 나라, 뉴질랜드!

이렇게 좋은 수식어를 가진 뉴질랜드가 아무런 대가없이 오늘날의 뉴질랜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뉴질랜드는 사회민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뉴질랜드의 한인 식당에 '술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벽에 붙여 있었다.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거리에서 취객이 경찰에게 발각되면 손님이 취할 때까지 술을 판매한 식당을 추적해 그 식당에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서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뉴질랜드였다.

더 나은 복지정책을 위해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계 최고의 낙농업국가가 되기 위해 농장주는 생산만 하고 국가가 가공·유통에 개입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술 문화에 관대하고 공권력이 신뢰를 잃어 힘이 없고 복지정책은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이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안목과 역량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여 안전한 사회,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노광희 의원〉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도 광활한 푸른 초원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라, 축복받은 땅, 뉴질랜드는 마운트쿡 국립공원, 뉴질랜드 남극 연안섬, 테 와히포우나무 공원 등 국토의 대부분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속적인 자원 관리에 있다.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행정부가 강력한 집행능력을 가지고 추진한다. 정책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국가와 지역별, 지자체별로 마련되는 환경기준,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규제의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광활한 초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용 보존하며 이를 또다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려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개발만이 살길이었지만, 이제는 후손을 생각하는 더디지만 바른 정책으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우리 성주군은 2012년부터 친환경 행복농촌,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생활공간과 영농현장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앞으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여 깨끗한 성주, 살기 좋은 성주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복수 의원〉

6박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실시한 연수였지만 이번 뉴질랜드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특히 뉴질랜드는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의 간섭을 받았던 뉴질랜드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남자들을 다른 나라에 원정을 자주 보냈다. 남자들이 외국에 원정을 가게 되면 남아 있는 여자들이 소와 양을 키우면서 여성들의 입지를 키웠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현존 국가 중 여성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을 보장한 나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1893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뉴질랜드 여성들의 피선거권은 26년이 지난 1919년에 주어졌으며 1933년에는 첫 여성 의원이 선출됐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여성들의 권리가 강한 나라다. 현재 총독이 여성이며 입법부, 사법부 등 정계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 있다. 이 나라의 경제력이 오늘날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뉴질랜드 연수는 여성 군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뜻 깊은 기회였던 것 같다.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배한수 의사담당 / 이수은 주무관〉

환경을 우선시하고 보전하고,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조성하려는 우수한 정책 등을 엿보았으며,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우수한 시설들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우리지역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영감을 준 이번 연수는 전문지식의 함양뿐만 아니라 사기앙양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주민의 물질적·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쌓는데 이번 뉴질랜드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